



질문전략

민혜리
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
교육지원부 연구교수

① 먼저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인지 고려한다.

문답을 통한 수업은 학생 수가 적고, 문답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습내용일 때 수업진행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.

② 질문을 왜 하는지가 분명해야 한다.

- 수업을 시작하기 전 학생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
- 어떠한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때
-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을 때
- 수업을 끝내며 정리를 하기 위해서
- 법칙이나 원리가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, 어떤 개념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는지를 대화로 풀어가고자 할 때
- 대립하는 이론들 사이의 관계를 토론하고자 할 때

③ 문답은 자연스럽게 우호적인 태도로 한다.

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 숙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자진해서 발표하지 않는 학생에게 먼저 질문을 하는 것처럼 징계나 벌로서 질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. 교수자는 학생의 실수에 대해 너그럽게 대하고, 학생 개개인의 내면생활을 잘 파악하여 학생에게 자신감을 주고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.



- ④ 학생에게 생각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준다.
- ⑤ 학생들에게 질문이나 대화는 언제나 환영이라는 생각을 심어주어야 한다.
- ⑥ 학생이 질문을 할 때는 끝까지 잘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.
- ⑦ 다른 학생에게 답하게 한다.

학생이 질문한 것에 다른 학생이 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. 이런 경우 뜻하지 않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내용을 더 넓게 살펴볼 수도 있다.

글쓰기교실 연구노트 시리즈

- 제1권 좋은 글의 요건 / 이익섭(국어국문학과 명예 교수)
- 제2권 논문 작성의 윤리 / 이정민(언어학과 교수)
- 제3권 비판적 사고와 학술적 글쓰기 / 김영정(철학과 교수) 외 7인
- 제4권 글쓰기의 수사학 / 박성창(국어국문학과 교수)
- 제5권 질적 연구의 방법론 / 황익주(인류학과 교수)
- 제6권 경험적 조사 방법론 / 김대일(경제학과 교수)
- 제7권 수학 글쓰기 / 계승혁(수리과학부 교수)
- 제8권 인용법 / 김태환(독어독문학과 교수)
- 제9권 독자 중심의 글쓰기 / 이정옥(숙명여대 의사소통센터 조교수)
- 제10권 번역과 논리 / 김태환(독어독문학과 교수)
- 제11권 토론, 어떻게 할 것인가 / 김수영('주)문학과 지성' 대표이사)
- 제12권 질적 연구논문의 작성과 평가 / 조용환(교육학과 교수)
- 제13권 영화평-어떻게 보고, 어떻게 쓸 것인가 / 김지미(영화평론가)
- 제14권 자연계열 리포트 작성법 / 김상현(서울시립대 강사)
- 제15권 공연·전시 감상평 작성법 / 전예완(미학과 강사)